

Style

조선일보

MARCH 2015 vol.122

MONT
BLANC



Meisterstück
and Hugh Jackman

마이스터스틱과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Meisterstück 90 Years Collection

#DontCrackUnderPressure



TAGHeuer
SWISS AVANT-GARDE SINCE 1860

TAG HEUER CARRERA AUTOMATIC DIAMONDS

카라 델레바인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지향합니다.
태그호이어처럼, 그녀는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품 및 AS 문의 태그호이어 부틱 청담점 02-548-6020~1 롯데호텔 소공점 02-776-9018 www.tagheuer.com/kr
갤러리아 EAST 수원점 천안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강남점 영등포점 노원점 월드타워점 대구점 울산점
창원점 부산 서면점 부산 센텀시티점 부산 광복점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경기점
충청점 부산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킨텍스점 대구점 AK플라자 분당점 수원점
대백프라자 명보사



에르메스 코리아
02 544 7722
Hermes.com



FLÂNEUR FOREVER



BURBERRY

BURBERRY.COM



Dior PRESTIGE

NEW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

화사하게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움

밝고 생기 있게 젊어 보이는 아름다운 피부의 비밀

장미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올 사이언스는 화이트 로즈의 변치 않는 고귀함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의 장미에서 추출된 농축액이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아시아 여성의 섬세한 피부를 위해 탄생된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은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어, 시간이 흐를수록 투명하고 건강하게 피어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로즈 드 그랑빌*과 결합된 새로운 화이트 로즈**는 다시 태어난 듯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주고, 더욱 화사하고 이상적인 탄력을 되찾은 피부는 고귀한 순백색의 장미 꽃잎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디올 가든에서 재배된 로즈 드 그랑빌에 대한 15년간의 연구 - 섬세한 피부에 대한 7년간의 노하우





Villeret Collection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BLANCPAIN BOUTIQUES

블랑팡 직영부티크 - 갤러리아 EAST 지하1층 (02-6905-3367)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에비뉴엘 2층 (02-2118-6474) ·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씨클 (051-745-1350)
워커힐 면세점 B1층 (02-450-6576) ·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02-2230-1222) · 신라면세점 제주점 2층 (064-710-7345)

www.blancpain.com



20



43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1924년 이래, 필기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Montblanc Meisterstück)' 탄생 90주년 기념 에디션이다. 1924년 함부르크에서 최초로 제작된 이래, 완벽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상징하는 마이스터스틱 컬렉션은 전형적인 149 만년설부터 클래식과 로망 시리즈 만년필, 수성 펜과 볼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2118-6053



28



14

- 20 **아티스트의 여행을 엿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은 아마 여행일 것이다. 특히 아티스트에게 여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술가의 여행은 작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22 **FATAL ATTRACTION** 섬세한 취향과 품격을 드러내고 스타일링에 고전적인 매력을 더하는 고구한 하이 주얼리 브로치 컬렉션.
- 24 **ARTISTIC FACTORY** 정교한 워치메이커들의 혼을 담은 스텔레톤 무브먼트는 스위스 시계의 정교이자 예술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 그 자체다.
- 26 **HAVE FUN** 몇 년째 스트리트 스타일이 강세를 이루며 '점점 더 어리게, 점점 더 재미있게'를 외치는 패션 필드.
- 28 **SPLENDID DAYS**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아이그너와 콜롬보의 뮤즈로 변신한 배우 김현주의 완벽한 백 스타일링.
- 36 **EXPLORE THE TRUTH** 거대한 투르비용 구조물로 천정을 장식하고, 항해와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로 완성한 워치 컬렉션은 몽블랑이 지금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업계에서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 37 **THE MODERN SUIT** 타탄체크 패턴 의상을 입고 각자 형태로 나열한 큐브에 앉아 있는 스무 명의 모델. 그들을 비추던 조명이 사서히 밝아지면서 각진 형태의 그레이 수트를 입은 모델들이 걸어 나온다. 톰 브라운(Thom Browne)의 2015 S/S 컬렉션이 시작되었다.
- 38 **TAILORING MEETS SPORT** 몸에 꼭 맞는 수트처럼 착용감이 완벽한 남성 슈즈를 원한다면 Z 제니를 선택하라.
- 39 **FIELD OF LA ROUGE** 승부와 아름다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여성 골퍼를 위한 미즈노의 여성 전용 클럽 '라루즈'.
- 40 **GOLF OR DIE** 기능성 웨어라는 한정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재기 발발하며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승부수를 건 럭셔리 골프 웨어 브랜드 마크앤로나(MARK&LONA)가 국내에 론칭한다.
- 41 **HARMONY OF LILY** 브랜드 론칭 15년 만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슈즈 브랜드 자르메강한 피에르 아리디의 독보적인 행보를 올해에도 계속된다.
- 42 **DREAM MANUFACTURE** 안경도 보석이었다면? 라는 의문을 해결해준 까르띠에 아이웨어의 가치, 그 특별한 장인 정신의 세계를 소개한다.
- 43 **HOROLOGICAL ARTS** 예로부터 시계 산업의 요람이었던 노샤텔 강동 지역에 자리 잡은, 오랜 전통과 시계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보베(Bovet) 캐슬, 샤토 드 모티에르(Château de Môtiers). 시계를 예술로 승화하며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일궈나가는 보베의 고구한 행보에 동행했다.
- 44 **MAGIC OF MASK** 착용하고 푸석해진 피부를 위해 단 20분만 붙였다 떼어내면 되니 간편함에서도 단연 최고인 시트 마스크. 일주일간 꼼꼼하게 테스트해보고 평가한 시트 마스크 리얼 체험기.
- 45 **EDITOR'S PICK** 공포의 환절기다. 상단 피부를 잠재우고 피부에 불협음이 가득한 생기를 더해줄 제품들만 엄선했다. 자, 이제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안목을 믿어볼 차례다.

Style 조선일보

Issue.122 March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필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GUCCI

GUCCI.COM

Jewel BLACK DRAMA

어떤 컬러, 소재와 매치하는 강렬함을 드러내는 블랙의 드라마틱한 매력.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랙 세라믹에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울트라 클래식 링 6반반대 **사벨 와인 주얼리**, 옐로 골드에 블랙 옻칠의 마다오브랄로 부채 모티프를 표현한 다바 네크리스 1천원반대 **블라비**, 스틸링 실바에 골드 블랙 옻칠을 매치한 지그재그 스텔링 실바에 골드 블랙 옻칠의 마다오브랄로 부채 모티프를 표현한 다바 네크리스 1천원반대 **부시론**, 아름다운 블랙 옻칠에 상징 기호로 난초꽃 모티프를 가워 넣은 카레스 드 오우테 베르 까르페에 네크리스 2천2백원반대 **카르페에**, 에디터 **베이진**



Beauty SPRING BALM

평소에 사용하던 화장품도 잊지 않을 피부 컨디션 특별살펴주는 환절기다. 특히 크림을 듬뿍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피부 건조증은 피스한 봄날의 불청객. 이럴 땐 크림 대신 고농축 에센셜 오일을 균형 밤 타인 코즈메틱을 눈여겨볼 것.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달래줄 뿐만 아니라, 초강력 보습시키는 장점을 살려 클렌징 밤, 나이트 밤, 멀티 밤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했으니 울분 피부 고민은 끝.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존의 크림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피부 재생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프리미엄 크림 앙베르', 케라미드 플로럴 워스, 오일인 오일, 레몬 쟈젤, 케라미드 오일 등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줄 자연 생분을 담았다. 리치한 연고 타입으로 소량을 덜어 손바닥의 온기로 녹이면 얼굴, 목 전체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오일 텍스처로 변한다(100g 45만원). '달랑 이모티비 클렌징 밤 유드 로즈우드'는 밤 타인에서 오일 타입으로 변하여 피부 속 노폐물을 밀끔해 제거해주는 밤 타인 클렌저. '메이브린 잔아돌과 모공 깊이 박힌 노폐물까지 자살없이 끌어내는 마들라 오일'을 함유했다(40ml 6만5천원). '비오템 비오수스 밤-무-오일 클렌저'는 밤 타인이지만 따뜻한 손에서 는 오일로, 물을 만나면 알코올 변하는 3인 변신 텍스처가 특징이다(125ml 4만2천원). 밤 타인 코즈 메틱의 원조, '엘리자베스 아덴 에이지리 크림'은 건조한 피부에는 물론 입술, 손등 큐티클, 헤어, 보디 등 건조하고 자극받은 부위라면 어디든 발라도 좋은 멀티 밤이다. 과거 한 아이의 무릎에 난 상처에 발라주었는데 8시간 후 완쾌된 이 얘기로 해서 행운의 이름이 붙은 전설의 아이 크림(50ml 30만). '조르 빌로 이모티비 크림'이나 '수르미 라카비리 밤'은 나이트 전용 처방으로, 기존의 부활초를 불러는 레 비엔날리스와 피부 리아스를 결합해 디톡스 효과와 함께 피부에 깊은 영양을 공급한다. 일반 밤보다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단연 돋보인다(50ml 23만원). '엘랑 수피 아이유 나이트 밤'은 피부가 수분을 주는 밤 동안 피부 세포의 활성 상태를 회복한 꿀이슬과 피부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밤 재형의 크림. 아주 풍부한 수분력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도통하게 발라 수분 맥 대신 사용해도 좋다(50ml 1만 8천원). 에디터 권유진



Fashion DOT! DOT!

복고적이고 아티스틱한 도트 패턴은 어느 스타일에도 접목하긴 늘 유쾌하다. 특색 뚜렷한 발랄하지만 특유의 모던한 감성도 느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리드미컬한 도트의 향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 숭이치까지 소재의 편칭 장식 프리 파우치, 16.5X10cm, 가격 미정 **마우이우**, 레트도 무드가 느껴지는 도트 선글라스 31만원 **돌체라기비나**, 큼직한 네이비 도트 패턴과 로고 요원이 유니크한 클러치, 30X24cm, 29만원 **진도**, 컬러 도트 프린트를 포인트를 준 미스 비브 티셔츠 러브 클래식 장지갑 1백40만원대 **로저 바비에**, 선명한 네온 블루 컬러와 도트 무늬가 세련된 린 스텔링 실바 1백26만원 **판디**, 입술 모티프와 도트 패턴이 어우러진 스미트 케이스 30.9만원 **에이트 드 스티드**, 에디터 권유진

포토:그라피 박진주

INSIGHT

편집부가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끊이지 않는 웰빙 음료의 손짓

웰빙 음료의 강세가 심상치 않다. 탄산수나 주스처럼 일상의 음료로 마시는 제품도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을 넣지 않은 웰빙의 특성을 강하게 어필해야 기본적으로 영향을 내릴 수 있을뿐더러, 차별화를 위해 자마다 다른 개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웰빙 바람'에 힘입어 신제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프리미엄 주스 시장에서는 과일즙을 끊어 만든 농축액으로 이루어진 '가짜 100%' 주스가 아니라 물을 한 방울도 섞지 않고 생과일의 즙을 그대로 짜낸 100% 착즙 주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수분 보충에 탁월하다는 코코넛 워터 음료도 국내에 상륙했다. 코코넛 원재료의 진한 맛을 담백 느낄 수 있다는 프리미엄 음료 자코(ZICO), 99.9%의 코코넛 워터를 농축 과정 없이 그대로 담았는데,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 프리미엄 주스의 입자는 해마다 더 단단해지고 있는 추세다. 풀무원의 생과일 음료 아임리얼, 자몽과 오렌지 주스를 내세운 매일유업의 플라즈마 내추럴 주스, 100% 생과일즙을 그대로 착즙한 주스를 선보이는 브랜드 팀코(TIPCO)를 비롯해 '진짜 100%'를 외치는 다수의 브랜드가 성장세를 타고 있다. 특 소는 탄산수나 가스 등 스파클링 워터, 즉 탄산수의 기세도 여전히 등등하다. 탄산수는 생수처럼 시체에 곁들여 마시기도 하지만 미서로 곁들여 마시기도 하며 천연 에이드를 만들거나 청량감 그대로를 만끽하며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건강한 음료로 애용하는 경우가 많다. 초장탄산수, 트레비, 디아방, 씨그램 등 토종과 수입 브랜드가 다양하게 국내 시장에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스페인산 프리미엄 천연수 마그마 데 카브레이로아(Magma de Cabreiroa)가 합류했다. 스페인 북부 화산 지대의 지하 300m 대수층에서 끌어올렸다는 이 미네랄 탄산수는 세계 4대 주류 명품인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최고상인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마그마를 채취하는 카브레이로아 지역은 스페인에서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연중 비가 많이 내려 지하수를 머금고 있는 대수층이 두껍다고 알려져 있다. 마치 바늘 끝처럼 피부를 자극하는 듯한 식감 때문에 바늘 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마그마는 풍부한 미네랄 성분 덕분에 음용인이 아니라 조리용으로도 애용된다고. 에디터 **고성연**



자료



마그마 데 카브레이로아



Exhibition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전시 공간, 피규어뮤지엄

영화(디즈니 리미티드) 촬영에 쓰인 세트빌 모형, (타미네이더 2) 촬영 당시 아널드 슈워제네가 실제 입은 가죽 의상을 걸고 있는 실물 크기의 피겨. 이 밖에도 헬릭, 간담, 이통 등 온갖 캐릭터들이 묘한 오라를 발산하는 국내 최대의 피겨 전시장이 생겼다. 최근 서울 강남 삼성동에 문을 연 피규어뮤지엄은 도대체 이저령 반대하고 내심 있는 컬렉션을 구축해온 이들은 누구까지 공중이 걸로 쫓는 피겨의 정이다. 지상 6층, 지하 2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이 박물관은 전체를 알리기 꺼리는 열렬한 피겨 수집가가 오랜 세월을 걸쳐 모았다는 희귀한 아이템을 비롯해 1천여 점의 피겨를 소장한 체험 공간이다. 외관 역시 7만 개의 LED 모듈로 이루어진 미디어 파사드 덕분에 행잉의 시선을 잡아준다. 지하 2층에는 아이들이 피겨를 접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 Toy N Joy가 자리 잡고 있고, 지상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기프트숍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상 3층부터 6층까지 본격적인 피겨 전시 공간이다. 3층 슈퍼 히어로 존(Super Hero Zone)에서는 아이언맨과 헬릭 등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 속 히어로들을 피겨로 만날 수 있으며, 4층 '애니 하어로 존(Ani Hero Zone)'에는 아톰과 간담, 그리고 수많은 마니아를 보유한 FSS(The Five Star Stories) 등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로봇 피겨들을 접할 수 있다. 5, 6층에 자리한 기획 전시실에서는 1년에 2번 테마를 바꿔 다양한 피겨의 쇼케이스를 펼친다. 그 첫 번째 기획 전시로 현재 열리고 있는 (MY TOY)展은 누구나 피겨를 즐기는 문화에 빠져들 수 있도록 리미티드 에디션 피겨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겨 등 아주 특별한 피겨 1백50점을 선보인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1만5천원, 소인 1만2천원, 만 4세 미만은 무료다(인터넷 예매 시에는 10% 할인 가능). 문의 02-512-8865 www.figuremuseum.co.kr 에디터 **고성연**

THE GRAFF BUTTERFLY

GRAF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레트로 무드가 느껴지는 화이트 프레임 선글라스 가격 미정 발렌시아가 by 세원 ITC.

깊은 컬러의 브랜딩 로고 장식과 체인이 눈에 띄는 사철 백, 24x15.5cm, 2백만원 상당.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를 세팅한 베이비 그라프 트릴로지 컬렉션 워치 가격 미정 그라프.

원형 버클의 페이먼트 벨트 39만2천원 상당 로렌 컬렉션, 에르메스.

조용히 느껴지는 패시가 럭셔리한 에르메스.

포켓 디테일을 더한 코튼 스커트 가격 미정 구찌.

열식 모티프가 유니크한 소가죽 키링 48만원 풀풀보 비아 델라 스피가.

경쾌한 컬러 패턴을 가미한 굵과 태슬 장식이 이국적인 피스 V 워치릴 17만원 멜리사.

스튜디오 장식을 더한 가벼운 마스컬리나 49만9천원 파비어나 필리피.

진주와 해골이 어우러져 워트를 지어내는 목걸이 33만원 스튜디오 식스.

드라세인 목을 연출해줄 인형같은 귀는 귀는 대담한 두터이 백만원 세트 가격, 로시.

구찌의 미니멀리즘을 살린 화이트와 브라운 컬러의 에르메스 카탈리나 브로치 가격 미정 사철.

스트라이프 패턴의 카탈리나 브로치 가격 미정 사철.

송이가죽과 악어가죽을 바구니처럼 엮은 디테일에서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브리앙 블랙 에디션 드와드 퀴르 배너에르 백, 36x44cm, 3천만원대 델보.

for her Selection

색을 최소화했을 때 드러나는 질재미가 아름답듯이, 깨끗하고 정제된 이미지를 지닌 순백색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아하고 고귀하다. 럭셔리 상징, 화이트 컬러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구찌의 미니멀리즘을 살린 화이트와 브라운 컬러의 에르메스 카탈리나 브로치 가격 미정 사철.

- 생로랑 02-549-5741
- 세원 ITC 02-3218-8376
- 에르메스 02-544-7722
- 그라프 02-2256-6810
- 발렌티노 02-543-5125
- 구찌 1577-1921
- 사철 02-543-8700
- 델보 02-3449-5916
- 멜리사 070-7706-4322
- 스튜디오 식스 02-523-2914
- 세르지오 로시 02-6905-3740
- 파비어나 필리피 02-6905-3626
- 풀풀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 발프 로렌 컬렉션 02-545-8200



TASAKI

60th Pearl & Diamond Jubilee



beats

화이트 컬러 스피커 29만원 비츠 바이 닥터드레.



버킷 실루엣이 멋스러운 누벨버그 백팩. 38X47cm, 5백60만원대 구찌.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니트 보타이 23만원 랭방 울프.



크레용으로 칠해놓은 듯한 프린트가 유니크한 화이트 스니커즈 가격미정 다음.



레디 트러닝 아이보리 코트 가격미정 포라다.

for him Selection

화이트와 누드 컬러만큼 스타일링하기 자유로운 컬러는 없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어 더욱 반가운 뉴트럴 컬러의 매력.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가볍고 캐주얼한 디자인의 화이트 재킷 가격미정 페이.



투명 프레임 안경 38만원 헤리티지.

자유자재로 원하는 각도에서 셀프 사진 촬영이 가능한 콤팩트 카메라 파워샷 N2 37만9천원 캐논.



스타드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가죽 팔찌 52만원 생로랑.



실크 꼬임 장식이 멋스러운 커프스 링크 40만원대 에르메스.



태슬 장식이 포인트를 준 니스 로퍼 1백만원대 페라모.

전문 다이버를 뜻하는 계통명답게 1,200m의 수심에서도 수압을 견디내는 화이트 라바 스톤의 씨미스터 플로프루프 1천만원대 오메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브리프케이스. 39X30cm, 1백90만원대 에르메네젤도 제나.



스트라이프 패턴이 돋보이는 캔버스 백팩. 36X45cm, 49만원 무이엑세서리.

- 구찌 1577-1921
- 다음 02-513-3232
- 포라다 02-3442-1830
- 헤리티지 070-8692-8452
- 페이 02-310-1678
- 생로랑 02-6905-3924
- 랑방 울프 02-6905-3496
- 캐논 1588-8133
- 무이엑세서리 02-3446-8074
- 페라모 02-3430-7854
- 에르메네젤도 제나 02-518-0285
- 오메가 02-511-5797
- 비츠 바이 닥터드레 02-2163-1993
- 에르메스 02-544-7722



SHOP FERRAGAMO.COM

Salvatore Ferragamo



MASERATI

GHIBLI

Turn on The Art

온몸으로 들어라. 디젤의 이 놀라운 퍼포먼스를



절대음을 타고난 단 하나의 디젤 MASERATI GHIBLI DIESEL



FORZA MOTORS KOREA CORP.

서울 전시장 02)3433-0888
분당 전시장 031)717-0886
부산 전시장 051)635-8999
서울 서비스센터 02)3433-0880
분당 서비스센터 031)608-3060
부산 서비스센터 051)928-8880

www.maserati.co.kr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Ghibli Diesel: 9,820만 원부터, V6엔진, 배기량 2,987cc, 자동 8단, 공차중량 1,875kg, 4등급, 복합연비: 11.5km/ℓ (도상: 10.2km/ℓ, 고속도로: 13.6km/ℓ), 복합CO₂: 175g/km
Quattroporte Diesel: V6엔진, 배기량 2,987cc, 자동 8단, 공차중량 1,945kg, 4등급, 복합연비: 11.5km/ℓ (도상: 10.2km/ℓ, 고속도로: 13.6km/ℓ), 복합CO₂: 175g/km
• 효율적 사용방법: 경제속도 정속주행, 급발진, 급가속 금지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표준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여행을 엿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은 아마 여행일 것이다. 특히 아티스트에게 여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술가의 여행은 작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며, 올해 여행 스케줄을 새롭게 짜보는 것은 어떨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가지는 것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술가 한성필은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작가라면 오지에서 자신을 침잠시켜 극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그간 사막과 남극, 북극 등의 척박한 환경에서 삶을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왔다. 최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 <지극의 상속>에서, 작가는 남극과 북극에서 촬영한 사진 작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그간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언제나 버킷 리스트 1순위는 북극과 남극이었습니다. 대자연의 장엄함과 그 이면에서 숨겨 있는 핏빛 역사 때문에 그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간의 필수 에너지였던 기름을 얻기 위해 고래와 물개를 도살하고, 석탄과 석유 개발로 무분별하게 발굴한 극지의 풍경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촬영을 위한 여행을 준비했지요.” 그렇게 탄생된 작품은 우리가 극지방이라고 하면 떠올리던 빙하와 북극곰의 이미지가 아닌, 인간의 욕심이 휩쓸고 간 송고하던 서도 황량한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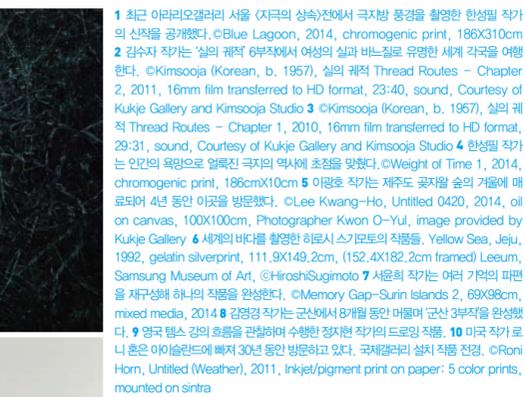
기존 대표작 ‘파사드’ 시리즈 역시 가림막과 벽화와 같은 환상적인 트로프피유(trompe-l'oeil, 눈속임 그림)를 촬영한 것이기에 세계를 여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사드’ 시리즈 초기에는 영국 유타 중이어서 인근에서 소재를 찾아다녔으나, 시리즈가 유명세를 탄 이후에는 리치치뿐 아니라 지인들이 추천해준 국내의 장소를 찾아가 직접 확인하기 위한 여행 아닌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촬영을 위한 여행과 여행을 위한 여행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한다. 물론 두 종류의 여행을 갈 때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여행 중 우연히 근사한 소재를 발견했을 때는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작품으로 만든 적도 있을 정도다. 촬영을 위한 여행을 갈 때는 일단 짐부터 엄중

다. 이번 극지방 촬영에는 갑자기 카메라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 대형 카메라 5대, 디지털카메라 3대, 삼각대 2대를 가지고 갔다. 오랫동안 꿈꾸던 극지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촬영한 한성필 작가에게 다음 작품이 궁금해진다. 그의 새로운 여행지는 대형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5월 방문할 쿠바 아바나로 예정되어 있다. 음악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에서 그는 또 어떤 영감을 받을까?

김수자와 히로시 스기모토의 바다

세계를 여행하는 작가라면 단연코 김수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우뚝 선 김수자는 올해 3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10월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입지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그녀를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린 작품은 ‘떠도는 도시들: 보파리 트럭 2727킬로미터와 비늘 여인이다.’ ‘떠도는 도시들: 보파리 트럭 2727킬로미터는 산디미갈이 쌓인 보파리 꾸러미에 앉아 유년 시절부터 살았던 전구 마을과 도시를 11일간 여행하며 만든 영상 작품이다. 비늘 여인은 작가가 관객에게 등을 돌린 채 대도시 여덟 곳의 균중 사이에서 있는 명상적 관점의 멀티 채널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도쿄, 상하이, 멕시코시티, 런던, 델리, 뉴욕, 카이로, 라고스의 거리에서 작가는 때로는 행인의 의아한 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작가 자신이 비늘이 되어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사회적 맥락을 실에 꿰어 관통하는 것이다. 최근작은 총 6부작으로 구성된 ‘실의 궤적’인데, 제목 그대로 세계 각 지역의 바느질, 직조, 레이스 짜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삶의 궤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페루 쿠스코의 성스러운 계곡, 마추픽추, 타킬레 섬마을에서부터 벨기에의 브뤼주, 크로아티아의 레포글라바, 파고, 스페인 알람브라 궁전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광들이 지역 고유의 색조와 건축물, 실짓는 퍼포먼스와 연결되어 마치 작품처럼 껴매어진다.

김수자의 작품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과도 같은 동적인 비디오 영상 작품이라면, 히로시 스기모토는 오랜 시간을 혼순간으로 함축시킨 것 같은 정적인 사진 작품을 선



보이는 작가다. 그의 대표작 ‘극장’ 시리즈는 장노출 기법을 사용해 미국의 아르데코 극장, 시네마 홀, 자동차 극장을 촬영한 작품이다. 한 편의 영화를 한 장의 사진에 담기 위해 영화 상영 시간 내내 렌즈를 노출시켜 스크린은 백색 공백이 되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극장 내부는 은은하게 밝혀진다. 사진의 숨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우아함에 매료당하는 아름다움은 연작이다. 또 다른 대표작 바다 풍경 역시 제주, 에게 해 등 각국의 바다를 찾아 다니며 장노출로 촬영한 아름다움 작품이다. 해변 마을에서 장기 체류까지 불사한 그의 열정을 담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바다와 같이 고요한 세계의 바다가 펼쳐지는 전시장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17점의 조각 설치 작품 ‘5원소’에도 각국의 바다 풍경이 담겨 있다. 김수자 역시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촬영한 ‘보파리- 알파 비치가 바로 그것이다.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알파 비치를 촬영해, 하늘과 바다의 상하 구조를 역전시켰다. 푸른 하늘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의 어색한 대비로 노예로 팔려간 원주민들이 느낀 상실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의 시간을 담은 작품들은 완전히 다르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노르망디와 프로방스,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의 인상파

그렇다면 언제부터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 주목받게 되었을까? 전통적으로 신화와 종교를 소재로 한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반면, 풍경화는 심오한 주제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낮게 치부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프랑스 풍턴블로 숲의 장 프랑수아 밀레·테오도르 루소, 노르망디 해변의 클로드 모네·외젠 부댕·윌리엄 터너 등의 작가들이 태양 아래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한 인상주의를 리드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특히 클로드 모네는 노르망디 항구에서 그 유명한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바로 이 그림이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 미술가들은 아틀리에에서 벗어나 물감과 캔버스를 들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는 전성기의 인상파 화가들이 열정을 불태운 곳이다. 앙리 마티스,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등이 노르망디에서 발생한 인상파를 계승해 많은 걸작을 남겼다. 최근 국제갤러리에 전시를 연 이광호 작가의 ‘그림 풍경’ 시리즈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함된 숲의 분위기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인상주의의 개념과 연계된다. 제주도 꽃지알 숲의 겨울을 소재로 한 신작들을 공개했는데, 작가는 그간 국내외 여행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풍경을 보았지만 이곳의 풍경처럼 자신을 매혹시킨 것은 없었노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4년 동안 꽃지알을 여러 번 방문하다가 나무줄기와 덩굴의 구조가 드러나는 겨울 숲을 주제로 삼게 된 것이다. 불모지의 용암 지대에 오랜 시간 낙엽이 쌓여 나무가 자라고 덩굴이 뒤엉켜 연출된 원시적 풍경은 작가에게 생명력의 상징으로 느껴졌다.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축축한 덩굴 숲, 새벽녘 햇빛이 서서히 새어 들어오는 자욱함 등 날씨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작가의 느낌을 담은 꽃지알의 겨울 풍경이 아름답다.

사진처럼 섬세한 이광호 작가의 사실주의 작품은, 마치 동양화같이 정중찬 구본창 작가의 ‘눈(雪)’ 시리즈와 비교할 수 있겠다. 구본창 작가 역시 제주의 겨울에 매료되어 카메라를 들었다. 올레길을 여행하던 중 대평마을 입구에서 이전부터 마음속에 그려던 수목화 같은 풍경을 발견한 것이다. 누가 큰 붓을 휘두른 듯 검은 화산암에 흰 눈이 쌓인 역동적인 절경은 즐거움과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반면에 서윤희 작가의 작품은 기억이 만들어진 풍경화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에 여행 하나의 추억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억의 파편을 재구성한다. ‘시간의 간격’ 연작은 태국, 제주, 강원도 등 방문한 장소에서 채집한 수박 껍질 가루와 홍차, 소나무 껍질, 조개 껍질, 치자 등 천연 염료들을 몇 년 동안 숙성시켜 종이 위에 인위적인 얼룩을 만들어 시작된다. 염색한 한지를 뜨거운 물에 쬐내는 번거로운 과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얇거나 질겨 조성한 농담과 번짐 효과는 심오한 자연풍경이 되고, 작가는 그 위에 작은 사랍과 사물을 그려 넣곤 한다. “오랜 외국 생활에서의 추억과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마음을 넓은 공간 안에 극도로 작은 인물로 묘사해 거리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무수한 세월을 건너뛸 천연 염료들은 과거와 미래, 자연과 인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상징 매체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요.” 작가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풍경이지만 ‘얼룩’이라는 상상력을 돋우는 존재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기억을 대입해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머무는 여행, 김영경과 정지현

진정한 여행기는 한곳에 오래 머무르기 마련이다. 아직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곳을 찍 으려는 여행가가 남아 있을까? 창작 문화 공간 여인숙에서 첫선을 보인 김영경의 ‘군산 3부작’ 연작은 8개월 동안 군산에서 입주 작가로 여행하며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군산을 사진과 설치 이미지로 표현했다. 1부 ‘퇴적된 도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서린 철길을 담았고, 2부 ‘인형, 신흥동’은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된 신흥동의 폐허를 멜랑콜리하게 촬영한 작품이다. 3부 ‘오래된 땅’은 과거 영화를 누리던 구시가지의 쇠락과 역사성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단지 관광객이 기억하는 군산의 근대 건축물과 적산 가옥, 일본식 사찰 동국사, 빵집 이상당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혼재된 도시 풍경을 담아낸 것이다.

정지현 작가는 영국 템스 강을 가장 오래 바라본 미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2005년 작가는 레이더를 통해 템스 강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는 업무를 맡았다. 딱 한 번 흘리는 것은 통나무를 배로 잘랐 기록했던 실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은 전혀 없었다. 기록의 용도조차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던 작가는 2012년에는 미술가로서 다시 템스 강을 찾았다. 매일 강가에 서서 지나간 배들의 행적과 강물을 종이 위에 연필로 기록했다. 물론 이 수행은 강물의 흐름이 연필보다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작가는 순간을 붙잡으려는 행위가 필연적인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며, 침묵의 시간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한다. 세상의 한쪽을 꾸준히 바라본다는 것의 가치는 얼마만큼 그 순간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진다.

30년 동안 한곳을 편애한 작가도 있다. 미국 출신의 로니 혼은 30여 년 전 모터 사이클을 타고 처음 여행한 아이슬란드의 자연과 대기에 반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방문해왔다. ‘유아더 웨더(You are the Weather)’는 아이슬란드 온천에서 만난 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시리즈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 작품.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받은 그녀에게 앞으로도 아이슬란드는 작가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 몇 명의 작품을 소개했을 뿐인데, 어느새 지면은 남극에서부터 영국, 나이지리아, 페루, 벨기에, 인도, 태국에 이르기까지 테스트테이션 리스트로 뻗어내렸다. 당신을 때리신 작품에 영감을 준 장소부터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가장 이상적인 여행 아이디어는 우리도 그 순간만큼은 아티스트가 되어 과거와 미래를 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목적지에 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하는 그 순간을 즐겨야 할 것이다. **ST** 글 이소영(서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홀더) 자작

Fatal attraction

섬세한 취향과 품격을 드러내고 스타일링에 고전적인 매력을 더하는 고귀한 하이 주얼리 브로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세본 에트렉션 스파이어 브로치 2,357만 원, 미다스카르 라운드 스파이어가 소용돌이치는 다이아몬드 물결에 아름답게 자리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브로치, 가격 미정, 문의 02-3213-2246 **사벨 화인 주얼리 1932 컬렉션 풀름 브로치** 6백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0,277캐럿과 25개의 핑크 크림 컬러 진주를 화려하게 세팅한 풀름 감 넘치는 브로치, 가격 미정, 문의 02-3442-0962 **티파니 스텔라제 파이브리브 클립** 옐로 다이아몬드와 톨레탄,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나무잎을 표현한 브로치, 티파니의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3천9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백엔트 다이아몬드 트리 브로치**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로 환상적인 나무를 표현한 시적인 주얼리, 1천3백만원, 문의 02-547-5211 **타사키 위스타리아** 등나무의 꽃과 줄기를 우아하게 표현한 환상적인 브로치, 레안보 문신을 카보숑 컷으로 세팅해 볼품없이 남았다, 4천3백만원대, 문의 02-3461-6538 **카르미에 맨더드 카르미에 핀** 우아한 포즈로 걸고 있는 맨더드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브로치, 맨더드의 눈을 에메랄드로 세팅해 미스터리스한 느낌이다, 3천9백만원대, 문의 1566-7277 **부세본 세렘 보렐 화이트 골드 브로치** 티아드를 크기와 발진 기술만으로 다이아몬드 광채를 배가시킨 브로치, 옷만 향해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벽한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다, 네르리스 맨더드로 활용될 수 있다, 3천만원대, 에디터 **베미진**

K i t o n

SPRING SUMMER 2015

SHINSEGAE MAIN 3F / 82 2 310 1578 THE GALLERIA EAST 4F / 82 2 514 9088 HYUNDAI MAIN 4F / 82 2 3449 5394
GRAND HYATT HOTEL ARCADE / 82 2 749 3088 SHILLA HOTEL ARCADE / 82 2 2236 3088 DEBEC PLAZA 2F / 82 53 423 9788 KITON.IT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워블로 클래식 퓨전 울트라-씬 스키텔론 킥 골드** 두께가 2.9mm에 불과한 인하우스 클래식 무브먼트 HUB 1300을 탑재한 스키텔론 워치. 18K에 플래티늄을 더한 워블로 특유의 킥 골드, 그래픽적인 다이얼, 7시 방향의 스틸 세컨즈까지 워블로의 시그니처 모티프를 모두 담은 베스트셀러 워치다. 스포티한 디자인에 스키텔론을 매치해 클래식하다. 4천원원대, 문의 02-2118-6208

카르띠에 신투스 듀옹 스키텔론 워치 고전적인 신투스 듀옹의 케이스에 그래픽적으로 완성한 스키텔론 무브먼트를 더한 카르띠에 워치의 새로운 버전을 제시한 컬렉션이다. 스키텔론 무브먼트 디자인 자체에 로마자를 대입해, 무브먼트만으로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한 독특한 시계다.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독특한 이 9611MC 칼리버는 카르띠에 매뉴팩처의 자체 제작 무브먼트다. 6천4백원원대, 문의 1566-7277

크로노스워스 시리우스 크로노그래프 스키텔론 시계의 복잡성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크로노스워스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워치. 1996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오래도록 브랜드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최소한의 골조만 남겨 시계의 세밀한 움직임을 더욱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다. 3천3백원원, 문의 02-310-1737

블랑팡 발라데 스키텔론 8 데이즈 8일간의 강인한 파워 리저브 기능까지 더한 아름다운 스키텔론 워치. 스위스의 핵심 브랜드에 무브먼트를 공급할 정도로 퀄리티가 뛰어난 블랑팡 자체 제작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1333SQ를 장착했다. 38mm 화이트 골드 케이스 알-빛엔 전체를 통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인그레이빙이 미세한 부분까지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8천원원대, 문의 02-6905-9967

그라프 마스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스키텔론 오토매틱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아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한 그라프의 타임피스. 럭셔리 타임피스의 도시 재-비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하고, 그라프 주얼리와 같이 정교한 세공 기술로 완성한다. 환원한 스키텔론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유니크한 케이스 디자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라운이 화려함의 정점을 이룬다.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브래게 클래식 컴플리케이션 5335 복잡한 정교한 스키텔론 워치에 투르비용을 장착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특히 이 워치는 창립자 이브라함 루이 브래게가 최초로 투르비용을 개발해 프랑스에서 특허를 받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시계기에 의미가 더욱 깊다. 수공으로 오픈워더 작업한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브래게가 보이지 않는 플리팅 투르비용까지, 예술품이라 불릴 만큼 완성도가 높다. 가격 미정, 문의 05-2118-6480

피아제 알티클라노 스키텔론 울트라-씬 해마다 진화를 거듭하는 피아제의 상징과도 같은 얇은 기계식 워치의 대명사, 알티클라노의 기복을 높인 스키텔론 워치. 세계에서 가장 얇은 2.4mm 스키텔론 무브먼트를 장착해 케이스를 포함한 시계의 두께가 5.34mm에 불과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0%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것. 스키텔론 워치의 생명인 파나시카까지 완벽해 가까이 들여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7천5백원원대, 문의 02-540-2297 **에디터 베이진**



Artistic factory

정교한 워치메이커들의 혼을 담은 스키텔론 무브먼트는 스위스 시계의 정신이자 예술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 그 자체다. 시계 기술의 혁신과 창조성, 놀라운 완성도가 빛어낸 아름다운 시간의 드라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itleist
Est. 1935
PREMIUM COLLECTION



Handcrafted Elegance
Limited Edition
Performance Heritage

프리미엄 컬렉션은 타이틀리스트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계승한 특별한 골프 컬렉션입니다. 최상급 나파 가죽과 자카드 패브릭을 사용하고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제작한 핸드크래프트 라인입니다.

EST1935.TITLEIST.CO.KR

서울 타이틀리스트 브랜드 스토어 강남도산로점 02-3443-2241
경기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센터 031-8060-6200 | 타이틀리스트 브랜드 스토어 평촌점 031-424-0014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844
대구 타이틀리스트 브랜드 스토어 대구봉무점 053-986-0732 | 경북 타이틀리스트 브랜드 스토어 구미점 054-462-7788



have Fun

인간이라면 누구나 젊음을 열망하듯, 패션계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째 스트리트 패션이 강세를 이루며 “점점 더 어리게, 점점 더 재미있게”를 외치는 패션 필드. 너무 유치하다고? 아니다. 이보다 더 쿨한 패션 애티튜드를 완성하는 아이템이 또 있을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쿨한 젊은이들의 장난감, 키덜트 아이템

요즘 한창 유행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보고 느꼈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재미난 기묘한 상상력을 더한 패션 아이템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흔히 포인트로 많이 활용하는 주얼 장식품과 토크 튀는 비비드한 컬러는 ‘애교’ 수준이다. 누가 더 튀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햄버거 모양의 가방부터 스팅글을 빈틈없이 채운 스웨트셔츠, 곰 인형을 단 스니커즈와 외살스러운 캐주얼로 가득한 하이힐까지, 조금은 우스꽝스럽기도 한 아이템까지 등장한다. 이는 하이엔드 패션을 장식할 만큼 토크 튀는 젊은 감각의 스트리트 패션이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고고했던 럭셔리 하우스에서도 앞다투어 장난감을 연상케 하는 키덜트 아이템을 선보일 정도다. 자칫 잘못하면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시련대게 소화하는 방법은 장난감이라는 룩과 믹스 매치해 쿨한 애티튜드를 드러내는 것. 예를 들어 클래식한 슈트와 믹스하거나 여성스러운 레이스 스커트와 함께 스타일링해 강약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처럼 키덜트 아이템은 지루했던 스타일에 재미와 생기를 더해줘 더욱 매력적이다. SNS에서 소위 잘 팔리는 패션-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면 키덜트(kid+adult) 아이템 하나쯤은 반드시 소장해야 할 것. **에디터 권유진**

(위부터 시계대로) 하트 모티브로 인코에 포인트를 준 플랫 슈즈 93만 원 **크리스찬 루부탱**,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등 위트 있는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모자 13만 원 **아메리칸 레트로** by **벤디 캠퍼니**, 스카피의 사랑스러운 루시 캐릭터를 스팅글로 장식한 스웨트셔츠 가격 미정 **페이**, 비즈 장식으로 여인을 형상화한 블랙 샌들 1백13만 원 **루퍼트 샌더슨** by **벤디 캠퍼니**, 몽환적인 무드가 느껴지는 캐주얼 프린트의 자갈 39만5천 원 **콜 데카르송**, 빨간 가죽 재킷 모티브의 체인 숄더백, 19X13cm, 1백98만 원 **모스카노**, 프랑스어 'oui'와 'non'의 타이포그래피를 입체로 새긴 가죽 클러치, 30X22cm, 49만 원 **전조**, 입술 모양의 선글라스 25만 원 **하 우스 오브 올랜도** by **오피스 더블유**, 스트라이프 패턴에 색다른 인공 프린트를 가득 채운 미들 힐 6만 원 **스튜어트 와이츠먼**, 레고로 만든 스카피 장식이 재미난 블랙 토트백, 21X20cm, 가격 미정 **라베리** by **코르보**, 큼직한 하트 무늬로 포인트를 준 미스 비비드 티셔츠 러브 컬렉션 백, 21X18cm,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악셀릿은 백 백스가 눈에 띄는 초미니 사이즈의 마이크로 백 백스 바킷백, 15X8cm, 1백72만 원 **켄디**, 하트, 입술 모티브와 LOVE 레터링까지 사랑을 알릴 듯한 듯 위트 있는 화이트 슬림은 1백19만 원 **필립 콜레안**, 슈퍼 하이힐의 얼음에서 압도적인 개성이 느껴지는 크로스 백, 21X23cm, 1백만 원 **스텔라 매카트니**, 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신축한 라임 모양을 완성한 유니크한 클러치, 19X11.5cm, 1백33만 원 **살트 올림피아** by **벤디 캠퍼니**, 스프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입술 모티브의 네그리스 9300원 **베나** by **무이 액세서리**, 배장식과 레오퍼드 패턴으로 고전적 기조를 연상케 하는 하이힐 23만9천 원 **아디다스 오리자널스**.

페이 02-310-1678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콜데카르송 02-6905-3458 모스카노 02-6905-3892 오피스 더블유 02-847-4651 전조 02-6905-3506 벤디 캠퍼니 02-2056-1231 벤디 캠퍼니 02-3442-7770 스투어트 와이츠먼 02-6905-3391 코르보 02-3467-8559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켄디 02-2056-9022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필립 콜레안 02-546-9132 무이 액세서리 02-3446-8074 아디다스 오리자널스 02-547-0325

CASIO®

Sync with the world.

THE WORLD'S FIRST*1 FULL-METAL GPS HYBRID WAVE CEPTOR*2

*1 Full metal 시계로서 2014년 9월 카시오가 조사한 바에 따름. *2 카시오의 독자적인 슬라 충전 시스템으로 구동하여 GPS로 위치 측정 및 전파 수신으로 시각을 수정하는 기능.

GPS HYBRID(하이브리드)전파 시계란 표준 전파는 지상에 있는 전파탑에서 송신되는 그 지역의 표준시각을 알리는 전파이며, GPS 수신은 전파탑이 없는 지역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 해당지역의 표준시각을 알려준다. 평상시에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표준 전파를 수신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마존에 가게 되면 GPS 수신을 통해 시계 내의 위치 정보를 아마존으로 전환시켜 현지 시각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표준 전파와 GPS 전파라는 2가지 전파 수신 시스템을 융합한 시계를 GPS 하이브리드 전파 시계라고 한다.

CASIO COMPUTER CO.,LTD. Tokyo, Japan



GPS HYBRID WAVE CEPTOR



Dual Dial World Time



OCEANUS Blue



- GPS satellite data & Radio Wave reception
- Just one push time adjustment anywhere in the world
- Titanium case and band

G-Cosmo
 (주) 지-코즈모
 02-3143-3011~19

- 제품에 대한 보증 및 A/S는 일본 CASIO사 한국 공식 수입원인 G-COSMO가 발행한 보증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제품 구매시 G-COSMO의 공식 보증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COSMO의 공식 판매처는 www.gcosmo.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고 게재 모델 "OCW-G1000" 판매처 | 이태원 G-FACTORY 02-3785-0718, 롯데 본점 02-772-3277, 롯데 잠실 02-2143-7427, 현대 목동 02-2163-2270, 신세계 본점 02-310-5272, 신세계 인천 032-430-1489, AK 수원 031-240-1290, 롯데 광복 051-678-3057, 대전 갤러리아 042-720-6198, 롯데 대구 053-660-3128, 롯데 울산 052-960-5211, 롯데 광주 062-221-1542, **면세점 | 인천공항점(CASIO 매장) 032-743-7922**

SPECIAL EVENT

오셔너스 구매 고객께 추첨을 통해
비즈니스클래스 뉴욕 왕복항공권을
 드립니다. (기간: 2/21~3/22)

www.gcosmo.co.kr

OCW-G1000-1A

캐시미어 카디건 2백18만원,
화이트 셔츠 68만원, 화이트 팬츠
78만원 모두 **콜롬보**, 악가죽
백 사철(Cybill) one of one
2천1백만원 **아이그너**.

블랙 아우터 1백65만원,
프린트 블라우스 85만원,
스카트 75만원, 가운데 끝지
패턴이 특징인 바건디 컬러 백
사철(Cybill) 2백35만원
모두 **아이그너**.



Splendid Days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아이그너(Aigner)의 뮤즈로
변신한 배우 김현주의 완벽한 백 스타일링. 2015년 S/S
시즌의 뉴 디자인과 워너비 라미티드 백이 모두 모인
 핫한 현장을 만난다. *photographed by kim bo sung*



프린트 원피스 1백65만원,
스카프 39만원,
벨트 39만원, 독특한 클립
장치가 있는 블랙 숄더지
가죽 백 오로라(Aurora)
2백10만원 모두 아이그너.



캐시미어 케이프 4백28만원,
베이지 반츠 86만원
모두 **골드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닥터 백 스타일의
오르넬라(Ornella) 백
1백35만원 아이그너.



화이트 드레스 1백95만원,
라진 롱 재킷 1백45만원,
체스판에서 영감을 받은 사각
패턴의 백 스카치(Scacchi)
2백95만원 모두 아이그너.



새틴 핑크 재킷 3백98만원, 니트
78만원, 팬츠 78만원, 스카프
58만원 모두 **콜롬보**. 한국에
단 50개만 입고된 리미티드 백인
멀티컬러 워킹 백 오로라(Aurora)
3백45만원 아이그너.

그레이 캐시미어 재킷
4백83만원, 블루 나트 78만원
모두 **콜롬보**, 네오비 컬러의
송아지가죽 시셀(Cybil) 클러치
95만원 **아이그너**.

라틴 원피스 1백25만원,
실크 스카프 35만원,
모던한 디자인의 송아지가죽
화이트 시셀(Cybil) 백
2백10만원 모두 **아이그너**.



헤어 윤성훈
메이크업 박태윤
모델 김현주
스타일리스트 김누리
프로덕션 김재영(그림공작소)
진행 황정희

콜롬보 02-3213-2303
아이그너 02-531-2173

Explore the truth

거대한 투르비용 구조물로 천장을 장식하고, 항해와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로 완성한 워치 컬렉션은 몽블랑이 지금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업계에서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2015년 SIHH에서 진정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준 몽블랑의 순간.



몽블랑의 정수를 담은 컬렉션, 몽블랑 바스코 다 가마 워치

시계업계에서 몽블랑은 전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격적인 브랜드로 포지셔닝되어 있다. 최고의 장인들을 영입하고, 레더 제품과 펜으로 일구어낸 자본력과 영업력을 컴플리케이션 워치 시장에 적용해 놀라운 행보를 보이는 것. 2015년 최고의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만이 집결하는 SIHH에서 몽블랑은 더욱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포르투갈 출신의 뛰어난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의 진취적인 개척 정신과 시간

의 정확성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인 것.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엑소 투르비용 미닛 크로노그래프 바스코 다 가마 리미티드 에디션. 제네바 SIHH 전시장 부스에 모인 전 세계 프레스들은 이 컬렉션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시계 주위를 둘러쌌다. 불균형과 균형미, 복잡성이 특징인 이 컬렉션의 44mm에 달하는 거대한 다이얼 뒤편에는 몽블랑이 추구하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비전이 담겨 있다. 실재 없이 회전하는 6시 방향의 정교한 엑소 투르비용은 몽블랑 워치의 기술력이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12시 방향에서 빛나는 몽블랑 스타 로고의 다이아몬드, 남반구의 밤하늘을 상징하는 다크 블루 에벤추린은 시계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 1858년부터 미네라 매뉴팩처에서 이어져온 헤리티지는 이 워치에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스톱워치 기능을 더했다. 파인 워치메이킹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것이라는 시계에 대한 몽블랑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크로노메트리 컬렉션인 것이다. 스페셜 에디션으로 바스코 다 가마의 배에 탑승한 60명의 선원을 기리며 단 60개만 한정 생산한 것도 특별한 점이다. 특히 모든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컬렉션은 르 로를에 위치한 몽블랑 매뉴팩처를 떠나기 전에 엄격한 몽블랑 랩 테스트 500을 거치기에 더욱 완성도가 높다.

변혁을 가져온 몽블랑 워치의 혁명

SIHH 기간 중 몽블랑 워치 분야의 책임자 알렉산더 슈미트(Alexander Schmedt)와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몽블랑의 발전과 행보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 말하며, 그 상징적인 컬렉션이 바로 바스코 다 가마 컬렉션이라 이야기했다. 그중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모델인 빌레 투르비용 실린드릭 지오스피어 바스코 다 가마를 중요한 컬렉션으로 꼽았는데, 세계 최초로 원통형 투르비용과 유니크함, 기술력을 강조한 월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일체화해 아름다움과 파인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모두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몽블랑 매뉴팩처 칼리버 MB M68.40의 중심에 1분 투르비용을 장착해 입체적인 형태를 완성했고, 핸드 페인팅 한 월드 타임 인디케이터는 전 세계의 낮과 밤을 보여주는 이 시계야말로 시계업계에서 항해를 시작하는 몽블랑의 행보를 보여주는 컬렉션이라는 것.

그는 또 "몽블랑은 전통적인 워치메이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만은 여타 브랜드와 전혀 다르죠. 가능성이 높은 워치 시장에서 몽블랑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파인 워치메이킹을 구현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가격경쟁력이라는 측면도 고려합니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몽블랑이 추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펜과 가죽 제품, 워치 라인업까지 갖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몽블랑은 시계업계에서도 유니크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모든 상품을 몽블랑에서 찾을 수 있고 커피와 고리를 크로스도 매칭하는 것도 가능하죠. 트렌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올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e-스트랩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던한 기술에 변화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더하는 것이 몽블랑이 발전하는 방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을 앞세워 워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몽블랑. 하이엔드 워치의 대변혁을 기대하게 하는 특별한 브랜드임에 분명하다.

에디터 베이진 재빠라 현지 취재



5

1 SIHH 전시장에서 상영한 규모의 부스를 선보인 몽블랑. 2 몽블랑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엑소 투르비용 미닛 크로노그래프 바스코 다 가마 리미티드 에디션. 3 SIHH 전시 기간 중 몽블랑의 새로운 여성 액세서리로 등장한 실린드릭 지오스피어 바스코 다 가마 컬렉션의 총괄책임자 알렉산더 슈미트. 4 몽블랑 워치의 e-스트랩. 5 탐험가 모험에 장착할 수 있다. 6 몽블랑 빌레 투르비용 실린드릭 지오스피어 바스코 다 가마.

the modern Suit

타넨체코 패턴 의상을 입고 격자 형태로 나열한 큐브에 앉아 있는 스무 명의 모델. 그들을 비추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각진 형태의 그레이 수트를 입은 모델들이 걸어 나온다. 그렇게 디자이너 톰 브라운(Thom Browne)의 2015 S/S 컬렉션이 시작되었다.

수트의 법칙을 깨다

패션 브랜드 톰 브라운을 논하기에 앞서 디자이너 톰 브라운 얘기부터 해야겠다. 어느 분야건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모범생보다 분방적인 감각으로 빛을 발하는 이디아가 있게 마련. 톰 브라운도 그렇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의상 공부는 한 적이 없다. 1997년 조지아 이트미나 소름 세일즈 직원으로 취직한 것이 패션업계에 입문하게 된 게다. 이런 그가 현재 남성들이 가장 입고 싶어 하는 브랜드의 옷을 만들고, 2006년과 2013년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너'로 선정될 만큼 뉴욕을 대표하며, 소위 가장 '뜨' 디자이너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스타일의 법칙과 틀을 깬 자만의 신선하고 자기 발랄한 발상 때문이다. 이 페이지에 소개한 톰 브라운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수트를 입을 법상치 않다. 그의 의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그는 까다롭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반면, 늘 새로운 것, 파격적인 것을 원했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남성 수트의 버젓단을 발목 선까지 짧게 잘라 고대본한 수트 룩을 경쾌하게 만들고, 재킷의 라인을 슬림하게 디자인해 새로운 클래식 룩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당시엔 바니의 시선도 받아야 했던 이 파격적인 수트 스타일은 현재 전 세계 남성들을 열광케 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창당동에 나그먼 10명 중 8명이 입고 있을 만큼 이 시대 멋쟁이 남성들의 워치북이 되었다. 2011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브랜드 톰 브라운은 기존 스타일과는 다른 무언가를 제시하고, 패션 취향이 평균 이상인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는다. 톰 브라운의 삼색 리본 디테일이 패셔너블한 남자를 상징하는 모티브가 된 데는, 까다롭지만 과장된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는 그의 취향과 디자인 철학의 영향이 크다. 톰 브라운은 '무심한 듯 시크(chic)하다'라는 말처럼 어떤 스타일이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세탁 후 햇볕에 바짝 말린 셔츠는 다림질을 하지 않고 터럭 털어 입고, 버튼다운 셔츠의 단추를 풀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패션과 스타일은 모를 자기 옷을 입는 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방식은 반드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디자인 철학이다. 이처럼 그가 만든 모든 옷은 패브릭과 커팅, 실루엣이 편안하면서도 젊은 취향을 따르지만, 반면 옷을 만드는 방식만큼은 아주 정교하고 엄격한 핸드메이드 기법을 고수한다. 그 때문에 결코 간부하지 않으면서도 클래식함을 지닌 룩을 탄생시킨다는 점이 톰 브라운 컬렉션의 가장 큰 매력이다.

클래식한 소재와 초현대적인 실루엣의 만남

톰 브라운의 쇼는 늘 파격적이고 재치가 깃들여 있다. 단정하면서도 클래식한 커머셜 룩과는 다르게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인 컬렉션 피스로 전세계 패션 피플을 열광케 한다. 모델의 머리에 램프 깃을 씌우기도 하고, 조금 민망할 만큼 음경 부분이 도드라진 팬츠, 바닥까지 걸리는 맥시커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스루 팬츠까지, 다소 자극적이지만 위트가 있는 룩이 대부분이다. 그는 이번 시즌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광대를 연상케 하는 투명 마스크 쓴 모델들은 하나둘 딱딱하고 각진 로트 형상의 수트를 입고 오거나, 그와 상반되게 인체의 근육처럼 울퉁불퉁한 수트를 입고 워킹을 시작했다. 이번 시즌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룩을 소개했다. 전통적인 소재인 울, 코트, 라틴 등으로 제작한 클래식한 스리 버튼 수트, 여러 가지 구조의 체스터 필드 오버코트와 트랜치코트 등을 선보인 클래식 테일러링 그룹과 옥스퍼드, 실크 자켓, 3D와 플 테크 등 독특한 텍스처가 느껴지는 소재로 만든 기하학적인 재킷, 각진 수트가 눈에 띄는 테크-트니 플레이트 & 라운드 아부토미 그룹이 그것이다. 이 두 그룹 모두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패브릭을 사용하되 입체적이고 초현대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달 들러온 반가운 소식은 톰 브라운의 워트와 파격적인 발상인 것. 2015 S/S 컬렉션 의상 10벌을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6층 스페셜 팝업 존에 전시한다고 하니 톰 브라운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서둘러 방문해볼 것. 더불어 감각적인 톰 브라운 남성 커머셜 룩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센터점,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에 입점한 톰 브라운 남성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톰 브라운의 감성,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다

톰 브라운의 세련된 감성은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도 충분하다. 그동안 남성 라인의 재킷과 카디건을 여자들이 구입해 입을 만큼 톰 브라운 남성 컬렉션은 여자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이런 여자의 사랑을 눈치챈 것일까. 톰 브라운은 최근 여성복으로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작년 9월, 단독 여성복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에 입점한 것. 이곳은 전차현을 비롯해 김해에, 최우 등 국내 정상급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남자의 전유물일 것 같은 수트를 몸통에 꼭 맞게 재단한 톰 브라운의 여성 룩은 의외의 여성성을 강조해줄 뿐만 아니라 최상의 컬러감과 페미닌한 소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클래식한 맛을 자아낸다. 특히 트윈트 재킷은 여러 가지 길이로 선보이며 트랜디세터가 선호하는 기본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인 트윈트 재킷과 달리 정장과 캐주얼에 두루 어울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톰 브라운은 수년간 남성의 전적인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빠르게 자연스럽게 여성의 스타일에도 스며들고 있다. 남성, 여성 모두를 끌어오는 힘, 그것은 명철한 디자이너 톰 브라운에게 가능하다. 문의 02-310-1362 에디터 권유진



1 4월 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6층 팝업 존에 톰 브라운의 2015 S/S 컬렉션 의상 10벌이 전시된다. 2 블라워 기둥을 연상케 하는 실크와 스텝이브 수트가 인상적인 2015 S/S 여성 컬렉션. 3 딱딱하고 각진 로트 형상의 수트를 선보인 2015 S/S 남성 컬렉션. 톰 브라운의 재킷과 완복에 가까운 테일러링을 엿볼 수 있다. 4 신세계백화점 본점 6층에 지어진 톰 브라운 남성 매장. 강박 최초의 매장으로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5 발목까지 걸게 자른 팬츠, 라깅이 좁은 재킷을 입은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스타일은 요즘 남성들이 가장 입고 싶어 하는 워치북이다. 6 깔끔한 핏과 젊은 감성이 묻어 있는 패셔너블한 톰 브라운 2015 S/S 커머셜 룩.



슬림은 디자인과 부츠의 형태를 결합한 캘리포니아 차커 부츠는 핑스에는 물론 워트랜드 록에 재킷이다. 편안한 착용감과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네오프렌, 스웨이드 소재는 0 톤이라 최고의 남성 브랜드인 제.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 65만원 **Z 제.나.**

제.는 클래식한 스웨이드를 가장 잘 다루는 이탈리아 브랜드일 것이다. 제.의 모든 슈즈는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기에 보디와 러버 솔 모두 가볍고 편안하다. 65만원 **Z 제.나.**



tailoring meets Sport

에 는 수트처럼 용감이 완벽한 남성 슈즈를 한다면 Z 제. 를 선택 하라. 나 레더와 스웨이드, 테크니컬 메시까지, 최고 소재를 매치한 Z 제. 의 테크메리노 레이서(Techmerino Racer) 스니커즈, 리포니아 차커 부 까지 남자를 더욱 지게 완성할 캐주얼 슈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남자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4.5cm의 러버 솔에 Z 제.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남자들의 자존심을 비웃스레 북돋아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다. 레드, 블루, 그레이, 그린 등 네 가지 컬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59만원 **Z 제.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편안하고 완벽한 핏을 선보이는 제.의 장수를 슈즈에 옮긴 Z 제.의 테크메리노 레이서 레드, 천연 메리노 울 소재를 가공해 만든 테크메리노는 통기성이 뛰어나 오래도록 착용해도 땀이 지지 않는다. 59만원 **Z 제.나.** 문의 02-546-6267 에디터 배미진



harmony of Lily

독특하고 예술적인 슈즈와 핸드백으로 패션계를 사로잡은 피에르 아르디. 브랜드 론칭 15년 만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슈즈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피에르 아르디의 독보적인 행보는 올해에도 계속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에르 아르디, 예술과 구두의 경계를 허물다

인스타그램에 등장하는 큐브 패턴 클러치와 스트리트 사진 속 컬러 블록,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피에르 아르디는 SNS 세대를 매료시킨 주인공이다. 그의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검색하니 국문 2천 개 이상, 영문 3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남자 아이돌들의 스니커즈가 유망세를 떨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셔니스타로 손꼽히는 셀럽들의 소위 '사복 패션'에 반드시 등장하는 아이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출시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스니커즈가 많은 컬러를 양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세터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몬드리안의 추상화가 떠오르는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디자인과 선명한 컬러는 미술관에 전시된 팝아트를 연상케 한다. 15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내용을 입증이라도 하듯 피에르 아르디의 커리어는 남다른데, 조형미술과 댄스를 전공한 그는 슈즈와 밖에 가감 없이 예술적인 감각을 드러낸다. 피에르 아르디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템인 큐브 패턴 클러치에는 2D와 3D를 넘나드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적용해 조형미를 표현했고, 특히 슈즈에는 춤과 몸의 움직임을 적용하기도 했다. 평범한 스타일을 단순히 패셔너블하게 변신시키는 피에르 아르디의 또 하나의 매력은 고급스럽다는 것.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컬러 블록과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해 신선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지만 결코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는다. 다음의 슈즈 디자이너로 시작해 발렌시아가의 슈즈 컬렉션과 협업한 것은 물론, 현재 에르메스 슈즈와 파인 주얼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패션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최근 에르메스 향수 중 주르 데르메스 보틀 디자인까지 선보였으니 이보다 더 활발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펼친 디자이너를 찾을 수 있을까.

올봄, 잇 아이템으로 등극할 릴리 라인

론칭 15주년을 맞은 피에르 아르디는 '플라워 파워'를 테마로 한 '릴리 라인'을 선보인다. 회화적인 느낌의 백합 모티프를 사용해 여성스러움을 배가한 것이 특징. 스테인드글라스처럼 표현한 백합은 꽃보다도 조형미가 뛰어난 피사체처럼 보이며 원색이 돋보이는 강렬한 컬러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이번 컬렉션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모노리스 힐'은 스텔리 큐브리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의 공존을 표현했다. 매트한 톤의 컬러 블록과 큐브 패턴 힐이 어우러져 여성의 옆모습을 더욱 아찔하게 만들어주는 데, 이 모든 컬렉션을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짜릿한 일이다. 이미 전세계와

의 컬러배레이션으로 선보인 'LOVE IT' 컬렉션은 품질을 기록했는데, 이 상승세를 이어 지난해 2월 아시아 최초 론칭 이후 1주년을 맞이한 한국 스토어를 위해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스토어에서 전 세계 단독으로 국내 고객을 위한 파우치 'Oh Roy'를 한정 판매한다. 'Oh Roy'는 슈즈와 핸드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팝아트를 모티브로 제작한 파우치로, 커다란 눈과 팝아트적인 느낌이 조화를 이루어 소장 가치를 더욱 높였다. 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층에 오픈하는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부터 시크하고 매시한 스타일까지 모두 연출할 수 있는 피에르 아르디의 이번 컬렉션만으로도 올해 위시 리스트는 꼭 찰 듯하다. 아마 백화점을 찾았을 때 발길을 붙잡는 코너가 있다면 바로 피에르 아르디의 매장일 것이다. 여기에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탐나는 한정판 아이템까지 더해졌으니, 이제 다가오는 봄을 만끽할 일만 남았다. 문의 02-310-5052(신세계백화점 본점), 02-3479-1924(강남점)

에디터 배미진,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1(7분대부터 시계 방향)로 강렬한 컬러 블록이 매력적인 스웨이드 미니백 BAG61 28, 5x21cm 1백29만원, 레드와 블루의 세련된 조화가 멋진 클러치 백 FV03 21, 5x15cm 2백37만원, 화려한 플라워 패턴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 1백35만원, 포양한 록과 캐주얼한 록 모두에 잘 어울리는 도큐먼트 케이스 40x31cm 85만원, 심플한 스타일에 위트를 더해줌 화이트 하이힐 스니커즈 91만원, 2 3개의 포인트 디테일로 실용성을 높인 플라워 패턴 백백 AV01 2백19만원, 3 파스텔 톤 컬러 블록 클러치 백 FV03 2백37만원, 4 편직 디테일의 패턴으로 소재 로퍼 HK06 73만원.





Golf or die

가능성 웨어라는 한정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재기 발랄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승부수를 건 럭셔리 골프 웨어 브랜드 마크앤로나(MARK&LONA)가 국내에 론칭한다. 유틸리티 있는 해골 모티프를 상징으로 골프 웨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룩이 가득하다. 이처럼 개성 있고 독특 튀는 골프 웨어를 탄생시킨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졌다. 얼마 전, 서울을 방문한 마크앤로나 CEO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모아키 마쓰무라(Tomoaki Matsumura)와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눴다.

골프 웨어의 고정관념을 깨다, 마크앤로나

이 페이지의 우측에 실린 대표 비주얼을 살펴보자.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의 화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럭셔리 골프 웨어 브랜드 마크앤로나의 2015 S/S 컬렉션 비주얼이다. 보통 골프 웨어를 떠올리면 드는 생각은 단순하고 진부하다는 것. 심표만 기리면 비슷비슷한 스타일로 보일 정도로 획일화된 디자인을 선보이는 보수적인 골프 웨어 시장에서 트렌디함을 기대하기란 사실 어렵다. 이런 점은 마크앤로나의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토모아키 마쓰무라에게도 큰 숙제이자 고민이었다. 그는 "2007년 마크앤로나를 만들 당시만 해도 럭셔리 골프 웨어라는 카테고리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분야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불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럭셔리하면서도 보다 트렌디한 패션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고 싶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골프 웨어였어요. 정식 론칭 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소수의 고객만 초대해 마크앤로나 트렁크 쇼를 열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일본의 유명 편집숍인 빈스, 유니타이트 애로즈 등에 입점하면서 '이건 되겠다'라고 성공을 예감했죠"라고 럭셔리 골프 웨어 시장에 주목하고 이를 발전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스스로를 멀티 크리에이티브라고 칭하며 웹사이트 디자인, 영상물 제작 등 다방면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그는 사실 패션을 전공한 디자이너는 아니다. "어릴 때부터 옷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재가 리플한 옷을 본 사람들은 늘 이 옷이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궁금해했죠. 전 사실 진짜 제품 영감사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패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패션을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론으로 패션을 배우면 저의 디자인 모토인 자유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이처럼 '혁명과 자유를 브랜드 철학으로, 골프 웨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자유로운 발상을 모토로 하는 마크앤로나는 전통적인 스포츠인 골프에 프레미, 핑크 등 패션 브랜드에서나 볼 법한 콘셉트를 적용해 독창적인 골프 웨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신선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을 받았던 <스타워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 캐릭터를 재치 있게 골프 웨어로 재해석했는데, 다스 베이더 외면 장식을 부채하거나 <스타워즈> 카툰 프린트를 활용해 마크앤로나 컬렉션 중 가장 사랑받는 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스타워즈>의 팬이라는 토모아키 마쓰무라는 마크앤로나의 하이엔드 컬렉션인 블랙스틴 라인인 강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강렬한 캐릭터가 필요했어. 때때로 때로는 것이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였는데, 이는 캐릭터로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대사를 보면 골프 용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라고 말했다. 스타일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브랜드라고 해서 기능성은 형편 없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슬림 핏의 티셔츠일지라도 패턴에 변화를 주어 스웨터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한 착용감과 기능성을 기본으로 갖춘 것이 특징이다. "행복은 기능을 따른다는 독일 조형 학교 비우하우스의 철학을 디자인 철학으로 삼은 그는 기능성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그 정의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탄생하고, 그것엔 디자인이 있어야. 마크앤로나의 디자인은 기능이라는 언어 자체를 형성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

마크앤로나는 토모아키 마쓰무라의 친구이자 할리우드 셀러브리티 카를린 기잡이 마크(Mark)와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나(Lona)에게서 영감을 받아 이름 지어졌다. 그들을 마스코트로 표현하기 위해 서가 아닌, 자유분방하고 허무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자체가 브랜드 마크앤로나가 추구하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크앤로나는 원디나 패턴이 강한 브랜드예요. 골프 웨어를 넘어 패션 카테고리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지요. 실제로 F/W 시즌에 마크앤로나 수트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더불어 쇼파나 카튼 등 리빙 브랜드로까지 확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크앤로나가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만큼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25일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마크앤로나의 인기를 즐기는 추세입니다. 나이 불문하고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원하는 개성 강한 골퍼에게는 유익하고 감각적인 마크앤로나가 매력적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브랜드지만 일본에 가면 마크앤로나 매장



1 지난 3월 5일 창립동 미팅에서 개최된 마크앤로나 국내 론칭 행사장 모습. 2 신중한 컬러감의 마크앤로나 피케 셔츠. 골퍼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유틸리티 있는 해골 모티프는 마크앤로나의 상징이다. 3, 4 골프 웨어 브랜드의 룩북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선하고 감각적인 룩과 비주얼을 담은 마크앤로나 2015 S/S 대표 비주얼. 5 마크앤로나 CEO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모아키 마쓰무라. 6, 7 카무플라주 패턴을 새겨넣고 멋스럽게 재해석한 팬츠와 골프화.

에 꼭 들른다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국내 마니아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웨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요. 골프 자체가 한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스포츠니까요."

2015 S/S 컬렉션, 트로피컬 서커스

마크앤로나의 이번 2015 S/S 컬렉션은 트로피컬 리조트에서의 서커스를 테마로, 레인보, 보타니컬 그래픽, 하이엔드 플라워 걸 등 컬러풀하고 핀한 패턴과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패턴의 귀재라 할 만큼 다양한 프린트가 눈에 띄는데, 대부분 빈티지 옷이나 유럽의 빈티지 소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유니크한 디자인만큼이나 골프 웨어 브랜드의 비주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신선한 비주얼 역시 모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모아키 마쓰무라의 손이 거친다. "이번 시즌엔 열대 우림을 표현할 온살을 찾아내는 것이 미션이었어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살아 있는 나비를 풀어놓았는데 다 날아가버리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시즌에서는 볼 수 없네요(웃음)." 핑크 화려한 라이프를 즐길 것 같지만 예상과 다르게 홀로 누수를 하며 조용히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좋아한다는 그는 실제로 만 나보니 더욱 유쾌하면서도 진중하고, 예술적 상상력과 창작 에너지가 넘치는 CEO이자 디자이너였다. 이런 그의 독보적인 개성과 색깔을 그대로 반영한 마크앤로나의 미래가 밝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마크앤로나의 전 라온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서 선보이며, 이번 국내 론칭을 기념해 블랙 카무플라주 패턴의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을 선보인다. 올봄 라운딩이 더욱 기대되는 건, 비단 에디션만은 아닐 것이다. 문의 02-3479-6165 에터 권유진



큰 비거리와 명쾌한 타구감, 라루즈 아이언

필드 위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패션과 실력, 두 가지의 조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미즈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클럽에 담았다. 라루즈(LA ROUGE)가 그 주인공. 빨간색 립스틱이 여성성을 극대화해주는 것처럼 미즈노 라루즈를 사용하면 필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골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라루즈는 드라이버와 페어웨이우드, 유틸리티, 아이언까지 풀 라인업으로 선보인다. 일반적인 도장 기법으로는 표현해내기 어려운 핫 레드 색상을 클럽에 구현한 미즈노만의 독자적인 도장 기법도 또 하나의 자랑거리다. 핫 메탈 소재와 함께 고분말 페이스, 크리스털 세이프 구조가 큰 비거리와 유쾌한 타구감을 전달하는 미즈노 라루즈 아이언은 여성 골퍼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이언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전한다. 5~7번 아이언의 페이스 부분에 반발 성능이 우수한 L자형 컵 페이스를 접목하는 동시에 아이언 솔의 측면을 초슬림화해 볼 초속을 향상시켰다. 그뿐 아니라 임팩트 시 뒤를림을 억제해 미즈노 아이언 특유의 타구감을 느낄 수 있다. 라루즈 드라이버와 미친가처럼 아이언에도 라루즈 전용 오로치 샤프트를 사용했고, 하모닉 임팩트 테크놀로지를 동일하게 적용해 미즈노 고유의 타구음을 경험할 수 있다. 미즈노 라루즈 아이언 세트 1백80만원대.

field of La Rouge

라운딩의 계절이 돌아왔다. 승부와 아름다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여성 골퍼를 위해 미즈노의 여성 전용 클럽 '라루즈'를 제안한다. 강렬한 레드 컬러 클럽과 최상의 기술력이 만나 펼치는 최상의 퍼포먼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그런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여성 골퍼, 미즈노 라루즈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필드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에 실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클럽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 이런 맥락에서 미즈노의 라루즈 드라이버를 제안한다. 멋진 디자인이 눈에 띄는 라루즈 드라이버와 우드, 유틸리티 모두 U.D.(Ultimate Dynamics Stability) 설계를 적용, 헤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였다. 또 안정된 방향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미즈노 라루즈 드라이버의 특징이다. 특히 라루즈에 적용된 오로치 샤프트는 그림 바트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 스윙이 편안해지고 헤드 스피드를 높여 비거리 향상까지 이끌어낸다. 여가 헤드 페이스를 슈퍼 피팅 페이스로 하고 날 부분을 라온으로 처리해 볼 초속을 높임으로써 비거리를 키웠다. 궁극의 타구음을 실현하기 위한 미즈노의 독자적인 하모닉 임팩트 기술을 적용해 견고하면서도 울림이 깊고 맑은 타구음을 느낄 수 있다. 미즈노 라루즈 드라이버 70만원대, 페어웨이우드 44만원, 유틸리티 40만원. 문의 02-3143-1288 에터 배미진

Dream manufa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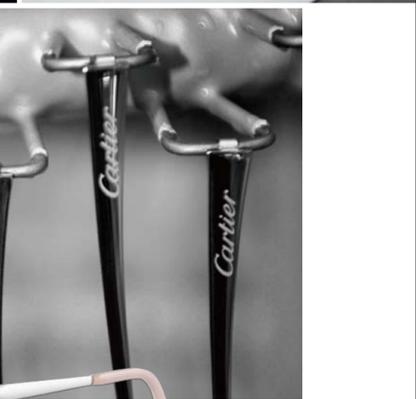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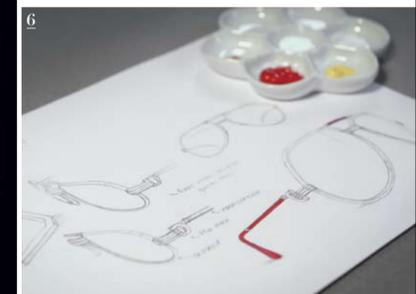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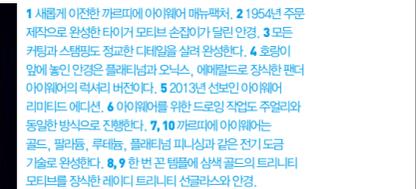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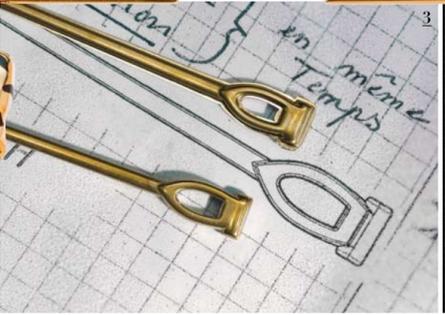
러브 컬렉션과 트리니티 링으로 유명한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하이 주얼리 브랜드에서 아이웨어 공장을 둘러보자 제안했을 때는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안경? 안경도 보석이었던가?'라는 의문을 해결해준 까르띠에 아이웨어의 가치, 그 특별한 장인 정신의 세계를 소개한다.

1887년 맞춤 안경에서 2015년 트리니티 선글라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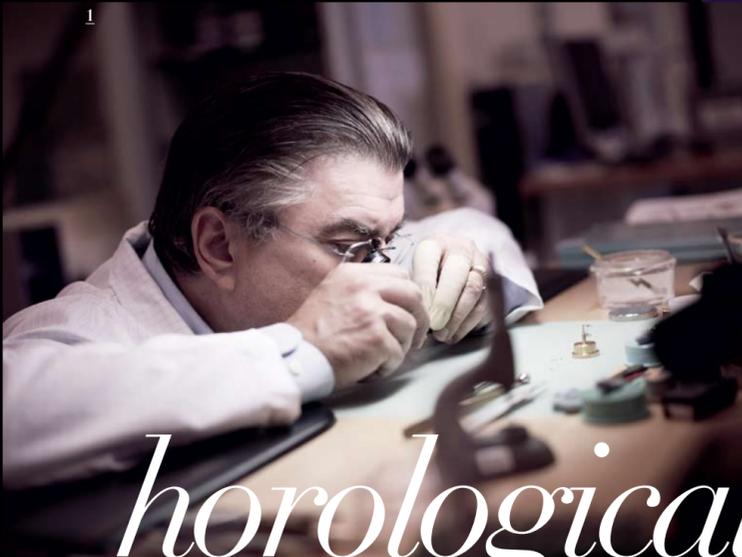
까르띠에는 아이웨어 제작 공정이 전통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장인이 필요한 진정한 수공 예술이라 이야기한다. 마치 주얼리를 세공하듯 안경을 만들어온 브랜드의 역사를 짚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887년 제작한 최초의 안경 제품들은 지금도 아름다운 자태로 기억되고 있는데, 타이거 모터브의 손잡이가 달린 오페라 글라스 디자인은 아이웨어를 왜 주얼리라 칭하는지 보여준다. 까르띠에는 1983년 본격적인 첫 번째 아이웨어 컬렉션으로 머스트와 방돔 컬렉션 아이웨어를 선보였는데, 이는 주얼리보다 더 나은 까르띠에 메종의 두 가지 핵심 모터브를 아이웨어에까지 대입하며 아이웨어 컬렉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컬렉션은 특별 주문으로 생산한 안경으로, 보석에 적용하는 희귀함과 아름다운 디테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후 파리 근교에 자리했던 공장은 최근 발-드-마른(Val-de-Marne)의 수시-앙-브리(Sucy-en-Brie)로 이전했고, 지난 2월 이 새로운 공장을 방문해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 까르띠에 아이웨어 매뉴팩처는 외관부터 독특한데, 건물 형태 자체가 안경의 프레임을 연상케 한다. 현대적인 이 공장의 내부는 오직 아이웨어를 위한 프로세스로 가득 차 있다. 안경을 조립하는 것부터 폴리싱, 다이아몬드 코팅과 래커링과 같은 전통적인 장인들의 기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창조적인 형태는 물론 완벽한 마감, 골드 제품까지 50개 수공 기술을 집약한 까르띠에 아이웨어 매뉴팩처는 트리니티 링, 팬더, 스크루와 같은 브랜드의 고유한 코드들을 유지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장인의 한평생이 녹아 있는 까르띠에 아이웨어 매뉴팩처

이곳에서 아이웨어를 만드는 데 평생을 바친 아이웨어 매뉴팩처 디렉터 도미니크 폴로니(Dominique Poloni)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아이웨어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특별한 인물로,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아이웨어 팩토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안해서 이렇게 브랜드 자체적으로 아이웨어만을 위한 매뉴팩처를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는 까르띠에 이외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 공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까르띠에다운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보통 프랑스 아이웨어 산업은 쥐라 산맥에 있는 공장에 허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까르띠에 아이웨어는 파리 근교에 있는 유일한 인 하우스 아이웨어 매뉴팩처인 셈이죠. 아이웨어에 흔히 사용하는 아세테이트만 해도 까르띠에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골드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까르띠에가 거의 유일하죠. 나무, 티타늄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트리니티, 머스트, 방돔과 같이 까르띠에 고유의 코드를 아이웨어에 접목하기 위해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방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6개월까지 인하우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골드 소재 만 다루는 장인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남다르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주얼리와 위치처럼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프랑스 세공 기술의 역사를 잇기 위한 노력까지 더해진 장소인 것이다. 새로운 컬렉션 만들 때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니, 이곳에서 완성한 아이웨어는 보석과 다를 바 없다는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까르띠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유독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오래도록 일한 사람들이 많다. 까르띠에 코리아에서 일하는 이들도 10년을 훌쩍 넘긴 사람이 많고, 프랑스 공방이나 까르띠에 재단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브랜드가 오랜 시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지 화려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화려한 주얼리와 멋진 시계로 유명한 브랜드지만, 어찌 보면 주력 아이템이 아닌 아이웨어 컬렉션까지도 최고의 완성도를 선보이고자 지속적으로 놀라운 투자를 하는 것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작은 것 하나도 최고의 가치로 마무리하는 까르띠에가 추구하는 가치는 보석과 워치, 아이웨어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에디터 배민지(배민지) 현지 취재



1 새롭게 이전한 까르띠에 아이웨어 매뉴팩처. 2 1954년 주문 제작으로 완성한 타이거 모터브 손잡이가 달린 안경. 3 모든 커팅과 스텝핑도 정교한 디테일을 살려 완성한다. 4 호랑이 앞에 놓인 안경은 플래티넘과 오닉스, 에펠트로 장식한 팬더 아이웨어의 리사리 버전이다. 5 2013년 선보인 아이웨어 리미티드 에디션. 6 아이웨어를 위한 드로잉 작업도 주얼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7, 10 까르띠에 아이웨어는 골드, 팔라듐, 루테튬, 몰리브덴 파우더와 같은 전기 도금 기술을 완성한다. 8, 9 한 번 본 템플에 삼색 골드의 트리니티 모터브를 장식한 레디디 트리니티 선글라스와 안경.



horological Arts

시계의 수도 제네바를 벗어나 버스로 두어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위스의 작은 마을 모터에르. 예로부터 시계 산업의 요람이었던 뇌샤텔 캉통 지역에 자리 잡은 이곳엔 오랜 전통과 시계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보베(Bovet) 캐슬, 샤토 드 모터에르(Château de Môtiers)가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눈앞에 펼쳐진 모터에르 마을의 눈부신 설경은 비로소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스위스에 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유롭고 고요한 분위기, 풍부한 채광으로 위치 매뉴팩처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이곳에서, 시계를 예술로 승화하며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일궈나가는 보베의 고귀한 행보에 동행했다.

현존하는 시계 예술의 집약체, 보베

이 세상에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최고를 뽑는다면 단연 보베다. 시계 마니아들 중에서도 극히 일 부만 알 정도로, 상위 0.01%를 위한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인 보베는 전 세계 유명 시계 컬렉터들이 로망으로 삼는 진 귀한 타임피스를 선보인다. 1년에 2천 개 내외만 생산하는 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데다, 가격대 역시 2천만 원대부터 억대까지 호기나 누구나 쉽게 범접할 수 있는 시계 브랜드는 결코 아니다. 올해 창립 1백33주년을 맞이한 보베는 1백 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업적인 유훈에 흔들리지 않고 브랜드 철학과 소신을 굽지 않아 시계에 예술적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은 주인공이다. 19세기 초 창립자 에두아르 보베가 그의 첫 번째 포켓 워치를 만들면서 시작된 역사를 되짚어보면, 스위스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시간을 표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인 '시계 예술'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킨 보베의 노력과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보베라는 브랜드에 대해 논하려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의 보베라 불리며 중국에서는 브랜드명이 시계를 일컫는 일반명사로 쓰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핸드 인그레이빙 기술과 에-펠 페인팅 데카레이션 덕분이다. 처음으로 투명한 백 케이스로 무브먼트 데카레이션을 볼 수 있도록 고안하고, 20세기 데카레이션 아트가 급격히 쇠퇴하며 에-펠 장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때 소수의 장인들을 끌고온 건 다름 아닌 보베였다. 그 때문에 이들의 정교한 미니아처 페인팅 테크닉과 인그레이빙 기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경지에 올랐다. 이로써 보베는 사실적인 묘사 와 세밀하게 정제된 미니아처 페인팅으로 중국 황제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시계를 통해 중국 황실이 유럽에서 유래된 예술적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고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지닌 데카레이션 아트는 물론 다이얼, 무브먼트까지 모든 공정을 100% 장인들의 수작업으로만 완성하는 보베의 워치메이킹 은 현재 디미에르 1738 골판과 샤토 드 모터에르 워크숍에서 이루어진다. 작은 부품부터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스위스 메이드' 대신 '스위스 핸드크래프트(Swiss Handcrafted)'라 표 기한다. 이는 단순한 시계 개념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보베의 예술성을 더욱 구 체화하는 결과물이다.

워치메이킹의 자부심, 디미에르 1738

68명의 장인이 근무하는 디미에르 1738 매뉴팩처는 한미경 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아주 작은 시계 부품부터 무브먼트 디자인, 데카레이션, 시계 조립, 캘리브 컨트롤, A/S 과정까지 모두 장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베의 무 브먼트 공방이다. 샤토 드 모터에르에서 그리 멀지 않 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1738년에 설립한 디미에르 자체 브랜드의 시계를 생산하다가 2006년 보베의 CEO인 파스 칼 라피가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보베의 무브먼트를 제작하 는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시계 다이얼과 브레이슬릿, 핸즈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데, 하루에 1개의 부품만 작업할 정도로 오랜 시간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하나의 부품을 만



1, 5 중앙정보보다 있고 작은 부품을 생생하게 자르고 구멍내는 장인의 작업 과정을 직접 보거나 워치메이킹에 대한 보베의 자부심과 놀라운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곳이다. 2 워치메이킹에 사용되는 36 미스 오프의 워치. 3 보베 캐슬에는 유서 깊은 외관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4 보베의 CEO 파스칼 라피. 6 보베의 예술성을 집약한 1830년 에두아르 보베의 워치메이킹 플러워 시계 워치.

드는 데만 15년 이상 경력의 장인을 투입한다고 하니 그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디미에르의 기술력이 응축 된 핵심 부품을 꼽자면 바로 시계 메카니즘의 심장부이자 시계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밸런스 스프링이다. 2006년부터 자체 밸런스 스프링을 제작했는데, 전 세계에 오직 57개 매뉴팩처에서만 제작 가능한 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공정이 필요하다. 이는 디미에르 공방의 자부심과 보베 워치의 명성이 오롯이 드러나는 대목.

전통과 현대의 조화, 샤토 드 모터에르

디미에르 공방에서 시계의 심장이 무브먼트가 태어나면, 보베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샤토 드 모터에르에 서는 시계의 얼굴이 결정된다. 14세기 초에 지어 전통과 역사가 깃든 이 캐슬은 오래된 외관과 아주 현대적이고 모던한 공방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다. 보베의 CEO 파스칼 라피는 2007년에 이곳을 인수해 하이엔드 매뉴팩처를 만들기 위해 레노베이션했는데, 유서 깊은 빌딩의 고유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현대적인 매뉴팩처를 조화롭게 접목하는 것이 당시 최대 미션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공방은 아름답지만 아주 평화롭고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으며, 워치메이커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장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 온도, 습도, 압력까지 철저하게 조절되는 공방 내부는 시계 장인은 물론 방문자 역시 깨끗하게 소독된 작업복과 신발을 신고 입장해야 할 만큼 작은 면적 하나도 유동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디미에르에서 제작한 무브먼트는 정밀한 시계의 형태로 이곳에 도착하는데, 장인이 매의 눈으로 수백 번 체크하고 테스트를 하고 나사나 비로소 소파자에게 유통된다. 보베를 대표하는 인그레이빙 작업과 에-펠 페인팅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핸드 인그레이빙은 무브먼트와 케이스, 다이얼, 베젤, 보베까지 장인의 손길로 생생하게 새겨진다. 이는 하나를 만드는 데 1백 시간이나 소요되고 작은 실수 하나라도 전체 작업을 다시 해야 할 만큼 강도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이런 특별한 데카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보베의 특별한 타임피스에 아름다운 얼굴을 부여한다. 보베를 대표하는 디미에르 컬렉션도 마찬가지다. 이는 보베의 첫 시계인 포켓 워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며, 손목시계에서 가죽 밴드를 분리하면 탁상시계로, 여가에 체 인을 달면 호중시계 혹은 목걸이 펜던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이 매력적인 기술이 바로 보베가 특허를 보유한 디미에르 시스템이다. 이처럼 오랜 전통과 시계가 지닌 현대적 가치를 모두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파스 칼 라피의 날카로운 브랜드 철학 덕분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러한 브랜드 철학을 설명했다. "오늘날 시계는 모든 곳에 놓여 있습니다. 거리에도, 우리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보베는 항상 대대로 내려오는, 맞춤 워치에 놓인 기술의 영속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문화유산인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보베의 고 귀한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문의 02-2192-9628 에디터 권유진(스위스) 현지 취재

SHOWROOM



버버리

에르메스



키톤



쿠피



피에르 아르디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숭에서 영감을 받은 골드&실버 주얼리 컬렉션을 시작으로, 독특한 실루엣의 수영복과 비치 재킷을 비롯해 잠금장치가 돋보이는 웨르세-미디 가방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어 다양한 패턴과 스포티 시크 룩의 세련된 남성 컬렉션 공간에서는 시티를 브라질리아스와 비토리아가 영감을 주었다. 파퓰 장인과 메종 팀의 협업으로 탄생한 캔들, 아르데코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테이블 웨어 컬렉션과 동양의 전통적인 염색과 직조에서 영감을 받은 아가트 컬렉션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실크 하우스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에르메스의 패턴과 컬러를 담은 다채로운 실크 제품을 선보여 컬렉션을 더욱 풍부하게 완성했다. 문의 02-544-7722

키톤 리미티드 데님 키톤이 2015 S/S 시즌 '리미티드 데님'을 선보인다. 키톤의 데님은 일본 쿠라보 원단만 사용하며 제작하며 버튼과 밑단, 버튼홀 등의 디테일에 키톤을 상징하는 레드 컬러를 사용해 키톤 데님의 생동감을 지닌다. 특히 허리 안쪽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에 상징하는 생산 번호를 적어 넣어 소장 가치를 높였다. 문의 02-6905-3787

톨 브라운 트윈드 오버코트 톨 브라운에서 2015 S/S 시즌을 맞아 스카프 컬러 디테일의 '트윈드 오버코트'를 선보인다. 섬세한 테일러링과 A라인 실루엣이 돋보이는 오버코트로 톨 브라운 특유의 위트를 담은, 스카프를 연상시키는 컬러 디테일이 독특하다. 또 고급스러운 그레이 톤의 트윈드 소재를 사용해 클래식함을 더했다. 문의 02-6905-3697

구피 레디디 웹 핸드백 컬렉션 구피가 2015 S/S 컬렉션으로 레디디 웹 핸드백 컬렉션을 선보인다. 1970년대 패션 아이콘인 알리 맥그로와 스타일 에 영감을 받은 이 백은 1970년대 무드를 재해석해 빈티지함이 묻어난다. 그라와 레드 컬러의 웹 스트랩과 드라이 스톤으로 엠보싱 처리된 로고 장식 디테일이 특징적이며 말의 재질을 모티브로 한 앤디코 골드 홀스터 장식이 돋보인다. GG 캔버스, 송아지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 파이톤과 코르카다일을 포함한 프레셔스 스킨 버전으로 출시했다. 문의 1577-1921

피에르 아르디 모노리스 힐 피에르 아르디는 2015 S/S 컬렉션의 테마에 맞추어 새로운 디자인의 힐인 '모노리스 힐'을 선보인다. 스텐리 큐브릭의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모노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의 공존'을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사선으로 비껴 어긋난 큐브 힐, 매트한 실버와 골드 톤의 컬러 블록이 특징적이다. 문의 02-310-5062

FASHION

LIFESTYLE

마크앤로나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 스토어 오픈 마크앤로나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 공식 스토어를 오픈한다. 럭셔리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 골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크앤로나는 프레미, 펑크, 마린 등의 콘셉트를 도입해 패셔너블하고 독창적인 골프 웨어를 선보이는 하이엔드 골프 웨어 브랜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전 라인업을 선보이며, 이를 기념해 신세계백화점 고객만을 위한 블랙 카무플라주 패턴의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을 출시한다. 문의 02-310-1537(본점), 02-3479-6165(강남점)

이샤벨라지 국내 론칭 이샤벨라지가 국내에 론칭한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이샤벨라지는 클래식하고 세련된 여성을 위한 유럽 패션 브랜드로, 모든 제품을 이탈리아에서 생산해 품질이 우수하다. 이번 2015 S/S 컬렉션에서는 데스크 블루, 에메랄드 그린, 피치 베이지 등의 메인 컬러와 기하학



이샤벨라지

마크앤로나



미즈노

JEWEL



디올 디올스노우 디올에서 '디올스노우 세럼'과 'UV 실드 프로텍션'을 선보인다.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화이트닝 세럼은 디올이 연구한 고농축 활성 성분인 함유되어 있어 브라이트닝에 효과적이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색소침착 부위가 없어지는 것이 특징. UV 실드 프로텍션은 2중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피부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비르는 즉시 촉촉하고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문의 080-342-9500

SK-II 피테라 미스트 SK-II에서 데이와 나이트 2가지 타입의 피테라 미스트를 출시한다. 피테라 미스트에는 피부 본연의 건강을 찾아주는 성분인 피테라™와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모이스처 락 기술을 함유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한다. 특히 분사 입자가 미세해 메이크업 후에 사용해도 피부에 번들없이 흡수된다. 데이 미스트는 낮 동안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장시간 메이크업으로 칙칙하고 건조해진 피부의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밤 전용 나이트 미스트에는 쿨링 에이전트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문의 080-023-3333

라쁘띠 로브 노와 라쁘띠 로브 노와 리엔케이 셀 투 셀 크림과 셀 투 셀 옴에센스를 선보인다. 1백만 개의 라일 셀을 플라겐 리피드 캡슐에 담은 셀 투 셀 크림은 피부 개선을 도와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특히 셀 투 셀 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셀 투 셀 옴에센스 역시 라일 셀 1백만 개를 담아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효과를 선사하며, 번들거림 없이 보송보송한 피부를 완성한다. 스킨과 로션, 에센스 기능을 압축한 올인원 안티에이징 에센스로 2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80-20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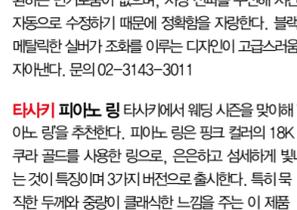
태그호이어 새로운 홍보대사 카라 델레비안 태그호이어는 새로운 홍보대사로 요즘 가장 핫한 모델인 카라 델레비안을 선택했다. 지난 1월 파리에서 열린 태그호이어 파티에서 카라 델레비안은 사자와 함께 레드 카펫을 걸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그호이어의 CEO 장클로드 비버는 파격적이면서 열광적인 느낌을 지닌 카라 델레비안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음을 밝히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더했다. 문의 02-776-9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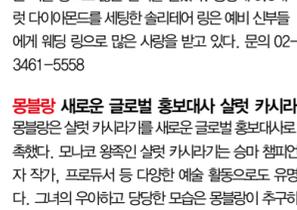
그라프 옐로우 스플렌더 전시회 그라프는 3월 11일부터 다음 달 동안 신라호텔 그라프 서울 샵에서 '옐로우 스플렌더 전시회'를 개최했다.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무색 다이아몬드 1만 개당 1개가 발견될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보석으로 그라프는 이를 활용해 각종 높은 주얼리를 탄생시켰다. 이번 전시회에는 펜시 비비드 옐로우부터 펜시 옐로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급의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50점 이상 선보였다. 문의 02-2256-6810



이우패션 부티크 코엑스몰점 오픈 1백 일 기념 이벤트 이우패션 부티크 코엑스몰점이 오픈 1백 일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행사를 연다. 이우패션 부티크는 룬치, 라드, 티샤, 미도, 해밀턴, 랩신 클라인 워치 & 주얼리, 스와치, 그리고 플라블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와치 그룹의 시계 전문 멀티 매장이자. 각 브랜드에서 소개하는 모든 컬렉션은 다양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며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코엑스몰점은 오픈 1백 일 기념 3월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서둘러 방문해볼 것. 문의 02-551-1982



몽블랑 빌레리 퍼패츄얼 캘린더 몽블랑에서 빌레리 퍼패츄얼 캘린더를 선보인다. 브랜드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무브먼트를 탑재해 매일 다른 마자라 날의 날짜와 4년마다 달라지는 2월의 날수를 2100년까지 조정할 필요가 없다. 또 8월 파워 리저브와 스텔 세츠, 라지 문페이트 기능까지 갖추어 매우 실용적이다. 문의 02-3467-8426



카시오 자샤 MTG-S1000D 카시오 자샤에서 'MTG-S1000D'를 선보인다. MTG-S1000D는 일본 프리미엄 공장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외부 충격에 강한 것이 특징. 태양전지를 사용해 배터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자상 전파를 수신해 시간을 자동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정확함을 자랑한다. 블랙과 메탈릭한 실버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지닌다. 문의 02-3143-3011



타사키 피아노 링 타사키에서 워딩 시즌을 맞아 '피아노 링'을 추천한다. 피아노 링은 핑크 컬러의 18K 사쿠라 골드를 사용한 링으로, 은은하고 섬세하게 빛나는 것이 특징이며 37가지 버전으로 출시한다. 특히 목격한 두께와 중량이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이 제품은 컵 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중형에 0.3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리테어 링은 예비 신부들에게 워딩 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02-3461-5558

